존 오웬 『성경의 신적 기원·권위·자증하는 빛·능력에 관하여』(1659, 굴드판 전집 16권 1862, 영문)

오웬 · 헌정 서신과 편집자 서문

존 오웬, 『성경의 신적 기원·권위·자증하는 빛·능력에 관하여』(1659), 굴드판 오웬 전집 16권(1862). 표제지, 편집자 서문(세 논고 전체), 헌정 서신(1658년 9월 22일 자. OCR에 쪽 머리 286~292가 보이는 부분과 그 앞뒤), 첫 논고 편집자 서문과 개요.

🧭 흐름 한눈에

이 책은 성경의 권위와 순수성을 지키는 세 논고를 한데 묶은 책이다. 세 논고는 성경의 신적 기원, 원문의 순수성, 퀘이커의 오류를 다룬다. 편집자는 먼저 세 논고가 왜 한 책인지, 논쟁의 계기가 된 월턴의 『다국어 대역 성경』이 무엇인지 소개한다. 오웬은 헌정 서신에서 성경 칭찬은 다른 이들에게 맡긴다. 대신 성경의 권위를 깎는 공격들을 드러내는 데 집중한다. 그는 그 뿌리를 로마 교회의 세 가지 주장에서 찾는다. 성경은 부분 계시일 뿐이라는 주장, 교회가 증언해야만 권위가 선다는 주장, 원문이 부패했다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세 번째, 곧 원문 부패론이 이제 개신교 학자들 사이에까지 스며들었다고 경고한다. 그 경로는 '모음 부호 후대 발명설'과 '고대 번역으로 원문을 고치는 비평'이다. 끝으로 이 책의 세 부분을 소개하고, 동료들의 기도를 구하며 맺는다.

📜 절별 정리

📜 1. 편집자 서문: 세 논고를 왜 한 책으로 묶었나, 월턴의 『다국어 대역 성경』

굴드판 편집자는 이 헌정 서신을 꼭 읽으라고 권한다. 브라이언 월턴과의 논쟁에서 오웬이 실제로 어디에 서 있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신적 기원, 히브리어·헬라어 원문의 순수성, 퀘이커(친우회)의 교리 오류는 성격이 꽤 다른 주제다.

능력”이 그것과 혼동되지 않도록 선을 긋는 일이었다. 또 첫 논고에서 오웬은 하나님이 계시의 모든 글자와 음절을 섭리로 지키셨다고 다소 조심성 없이, 단서 없이 말했다. 그런데 막 나온 월턴의 『다국어 대역 성경』은 수천 개의 이문(사본마다 다른 읽기)을 보여 주었고, 이것이 오웬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오웬이 이 책을 문제 삼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편집자는 이 성경의 출간 과정을 정리하고, 월턴을 영국 성경학의 큰 은인으로 높인다. 다만 왕정복고 무렵 크롬웰을 “큰 용”이라 부르며 헌사를 바꾼 일은 비판한다.

1. 세 논고: 신적 기원·원문 순수성·퀘이커 반박
2. 퀘이커 반박은 '자증'과 '내적 빛'을 가르는 일
3. 오웬의 '모든 글자 보존' 표현은 단서가 부족했다
4. 월턴의 이문 수천 개가 오웬을 자극했다
5. 편집자는 월턴의 학문을 높이 평가한다

출간 경과(편집자의 기록):

- 1652년: 월턴이 안내서를 냄. 그해 말까지 약 4,000파운드가 모금됨. 국무회의가 1,000파운드를 약속하고 인쇄 종이에 관세를 면제함.
- 1653년 5월: 모금액 9,000파운드. 그해 가을 인쇄 시작.
- 1654년 1권: 서론(Prolegomena)과 모세오경. 히브리어, 라틴어 불가타, 칠십인역, 시리아어, 옹켈로스 탈굼, 사마리아어, 아랍어.
- 1655년 2권: 역사서. 사마리아어 제외.
- 1656년 3권: 욥기~말라기, 에티오피아어 시편 추가.
- 1657년: 4권 외경, 5권 신약(헬라어·시리아어·페르시아어·불가타·아랍어·에티오피아어), 6권 이문과 비평 주석.
- 협력자: 어셔, 캐슬, 하이드, 포코크, 라이트풋 등.
- 월턴은 1660년 체스터 주교가 되었고, 약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 **요한복음 5:39**
> 책 표제지의 표어 “성경을 상고하라”. 책 전체가 성경 자체로 돌아가자는 호소임을 알린다

>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퀘이커가 주장한 내적 빛의 교리를 반박하면서, 그는 말씀의 자증하는 능력에 관한 자신의 깊고 독창적인 견해를, 그것과 혼동될 수 있는 교리와 구별하고 있었다." (편집자)

“성경 문헌이 이보다 더 큰 빚을 진 이름은 영국 학문의 빛나는 명단에도 드물다.” (편집자, 윌턴에 대해)

📜 2. 헌정 대상과 서문의 방향

오웬은 이 책을 옥스퍼드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의 참사회원들과 신학생 전체에게 바친다. 오웬은 당시 이 학교의 학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치는 이유는 이렇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오웬이 아는 누구 못지않게 성경을 귀히 여기고 공부하며, 오웬은 모두가 그러기를 간절히 바란다. 서문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성경을 칭찬하고 공부를 권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성경에 던져지는 비난과, 그 권위를 깎아내리는 여러 수법을 드러내는 일이다. 첫째는 거의 날마다 누군가 잘하고 있으므로, 오웬은 둘째에 집중한다. 그것이 뒤따르는 논고들의 목적을 더 잘 보여 주기 때문이다. 오웬은 짧은 논고에 비해 서문이 길어질 것을 알지만, 주제의 무게에 비하면 오히려 짧다고 말하고 곧바로 본론에 들어간다.

1. 대상: 크라이스트처치 참사회원과 신학생
2. 성경 칭찬보다 공격의 정체 폭로에 집중
3. 공격 폭로가 책의 목적을 잘 보여 준다
4. 공격자들은 사탄의 간계와 육적 이해관계에 묶여 있다
5. 공격자 유형은 많아 대표 사례만 다룬다

"여러분 중 어떤 이들은 내가 아는 누구 못지않게 성경을 귀히 여기고 공부한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기를 내 마음은 간절히 바란다."

📜 3. 로마 교회: 성경을 맡았다는 자들의 배신과 세 가지 독한 샘

오웬이 가장 먼저 따지는 상대는 로마 교회다. 로마 교회는 자기만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유일한 자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주장한다. 오웬은 그들의 원리대로 따져 보자고 한다. 맡았다는 그 신탁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보자는 것이다. 첫째, 그들은 성령이 쓰게 하지 않은 책들(외경)을 더했다. 이로써 하늘에서 온 말씀을 사람에게서 난 것과 섞어, 말씀의 자증하는 능력을 부정했다. 이는 말씀과 함께 참 교회에 영원히 머물겠다고 약속된 분별의 영을 잃었다는 증거다. 둘째, 그들은 끝도 바닥도 없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 곧 전통을 내세워 성경의 충분함을 빼앗았다. 셋째, 원어 성경이 부패해서 확실한 규범이 못 된다고 하면서,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번역(불가타)을 그 자리에 앉혔다. 넷째, 자기들이 말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성경을 "잉크와 종이", "밀랍 코"(아무 쪽으로나 휘는 것), "레스보스의 자"(휘어지는 납 자)라고 부른다. 오웬은 이 모두를 세 가지 독한 샘으로 정리한다. 하나, 성경은 부분 계시이고 나머지는 전통 창고에 있다. 둘, 성경은 로마 교회의 증언 없이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임을 드러내지도, 양심 위에 권위를 행사하지도 못한다. 셋, 원본 사본이 부패해 교리의 표준도, 번역의 시금석도 못 된다. 앞의 둘은 본론에서 다루고, 이 서문에서는 셋째만 다루겠다고 한다.

1. 로마는 성경의 '유일한 보관자'를 자처한다
2. 외경을 더해 말씀의 자증 능력을 부정했다
3. 전통을 더해 성경의 충족성을 빼앗았다
4. 원문 대신 불가타 번역을 왕좌에 앉혔다
5. 세 샘: 부분 계시·교회 증언 필요·원문 부패

> 디모데전서 3:15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로마서 3:2

(인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표현. 신탁을 맡은 자에게 신실함이 요구된다는 전제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사야 59:21

말씀과 영이 참 교회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는 약속. 외경을 섞은 로마가 분별의 영을 잃었다는 근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21:25

(표현이 닮음)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에서 온 말씀과 사람에게서 난 외경의 대비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누가복음 19:22

“네 입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로마가 스스로 원문 부패를 주장한 것이 자기 정죄가 된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예레미야 2:26

(인유) “도둑이 붙잡혀 수치를 당함같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로마를 꾸짖는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열왕기상 21:20

(인유) 아합처럼 “악을 행하도록 자신을 팔았다”. 죄를 오히려 자랑하는 태도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은 번역문의 말이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과 관계있고 일치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찍은 도장 때문에 권위를 갖게 하려 한다.”

“세상이 생긴 이래, 맡겨진 신탁에서 자기가 신실하지 못한 배신자임을 증명하려고 이토록 애쓴 자들이 있었던가?”

📜 4. 원문을 깎아내리는 로마의 공세가 커지다: 르 제와 모랭

오웬은 원문 권위를 깎아내리는 일을 사탄의 모든 고안 가운데 가장 해롭다고 본다. 종교개혁 초기, 트리엔트 공의회 전에는 로마 쪽도 불가타를 쭈뼛쭈뼛 변호했을 뿐이다. 카예탄, 에라스뮈스, 비베스는 원문을 더 낫게 여겼고, 공의회 뒤에도 안드라디우스, 아리아스 몬타누스, 마시우스 등이 그랬다. 그러다 '불법의 비밀'이 가면을 벗었다. 멜키오르 카누스, 린다누스, 벨라르미누스, 그레고리우스 데 발렌시아, 레오 카스트리우스, 헌틀리 같은 이들이 원문이 부패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헌틀리는 히브리어 성경의 부패를 불가타의 영예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기까지 했다. 이들은 레이놀즈, 휘터커, 유니우스, 리베투스, 샤미에, 게르하르트, 에임스 등 개신교 학자들에게 반박당했다. 그런데 이제 불길이 더 커졌다. 원문을 직접 인쇄하면서 동시에 깎아내리고, 온갖 번역을 원문과 경쟁시키는 것이다. 파리 다국어 성경을 낸 미셸 르 제의 서문은 불가타가 참 원천이라고 말한다. 또 신앙의 참 자필본은 “교회의 영” 안에 있으며,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문자가

모랭은 교회가 원문을 버릴 이유를 몰랐는데도 1,100년 가까이 불가타를 고수했다며 '교회를 인도하신 성령'을 찬양한다. 오웬은 이것을 이유도 모른 채 고집하는 맹목, 소크라테스의 '다이몬' 같은 인도라고 반박한다.

1. 원문 비하는 사탄의 가장 해로운 고안
2. 초기 로마 학자들도 원문을 더 높였다
3. 이제는 원문을 찍어 내며 깎아내린다
4. 르 제: “가르치는 것은 문자 아닌 교회의 영”
5. 결과: 교황주의냐 무신론이냐의 양자택일

당시 퍼진 주장들(오웬의 정리):

- 옛 히브리 문자는 사마리아 문자에서 아람(갈대아) 문자로 바뀌었다.
- 모음 부호와 악센트는 최근의 발명이라 권위가 없고,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 히브리어 지식은 모두 칠십인역에서 왔다.
- 유대인이 구약을 부패시켰다.
- 신구약에 이문이 셀 수 없이 많다.
- 지금 것과 다른 사본들이 모두 사라졌다.

> **데살로니가후서 2:7**
> (인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처음 숨어 일하던 원문 공격이 이제 드러났다
>
>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 **이사야 14:29**
> (인유)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그 열매로 날아다니는 불뱀이 난다. 공격이 점점 자라는 모습
>
>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19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20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 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21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22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23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앗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이천 마리를 주리라 24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

"결국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교황주의자가 될 것인가 무신론자가 될 것인가를 고르는 일뿐이다."

"나로서는, 무오한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가련한 퀘이커를 믿는 만큼만, 모랭이 내건 조건의 교황과 추기경단을 믿겠다."

📜 5. 개신교 안으로 스며든 첫 길: 모음 부호가 늦게 생겼다는 주장

오웬은 이 병이 로마라는 "이미 철저히 오염된 집" 안에만 있었다면 덜 중요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터져 나왔다. 종교개혁과 학문 부흥은 같은 시기, 대부분 같은 사람들이 이끌었다. 츠빙글리와 루터가 설교를 시작한 무렵, 갈라티누스는 원문이 부패했으며 탈무드로만 회복된다고 주장했다. 오웬은 이 양보 하나가 유대인과 논쟁하는 그의 입장을 크게 해쳤다고 본다.
개혁자들은 대부분 히브리어에 능했다. 그 무렵 가장 박식한 유대 학자 엘리아스

부호와 악센트가 그리스도 이후 500~600년 무렵 티베리아스의 마소라 학자들(본문 전승을 다듬은 유대 학자들)이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웬은 레비타의 의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뜻 전체를 옛 랍비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데 있었다고 본다. 이 주장을 개혁자 일부가 받아들이자 로마 쪽이 기회를 잡았다. 코클레우스가 "유대인이 모음 부호로 성경을 부패시켰다"는 루터의 말을 칭찬한 것이 그 예다. 뮌스터와 유니우스가 이에 반대했고, 대 북스토르프가 『티베리아스』(1620, 바젤)에서 이 주장을 길게 논박했다. 그러나 카펠루스가 『밝혀진 모음 부호의 비밀』을 익명으로 내며 레비타 편을 들었다. 옥스퍼드의 프리도 교수는 교황주의자들이 이 주장을 악용한다고 경고해 놓고, 본론에서는 카펠루스를 그대로 따랐다. 소 북스토르프가 이를 반박했다. 오웬은 새 주장을 편 이들끼리도 엇갈린다고 지적한다. 카펠루스는 부호 없이도 문맥으로 쉽게 읽힌다고 하고, 모랭은 부호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마침내 월턴의 다국어 성경 서론이 이 주장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고, 이것이 둘째 논고를 쓴 주된 계기가 되었다.

1. 개혁과 학문 부흥은 함께 갔다
2. 레비타: 모음 부호는 티베리아스의 후대 발명
3. 로마가 이 주장을 개신교 공격에 썼다
4. 대·소 북스토르프가 이를 반박했다
5. 다국어 성경 서론이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 **고린도전서 3:13**
> (인유) "그날이 밝히리라". 개신교 안에 퍼진 원문 비하의 의도는 하나님과 그날이 드러내실 것이다
>
>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 **열왕기상 20:33**
> (인유) 벤하닷의 신하들이 아합의 말을 낚아챔. 교황주의자들이 개혁자들의 말실수를 낚아채 쓴다
>
>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그 사람의 목적은 의심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 세계가 성경의 뜻 전체를 옛 랍비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여기에 이 문제의 첫 균열이 있다."

📜 6. 두 번째 길: 비평의 남용과 칠십인역 의존론

언어 지식이 늘면서 그것을 본문 비평에 쓰는 일도 늘었다. 오웬은 이 연구가 어려운 본문을 푸는 데 말할 수 없이 유익하다고 인정한다. 베자, 스칼리게르, 카조봉, 어셔, 그로티우스, 카펠루스 등 개신교인이 주로 이 일을 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은 헛된 영광과 호기심에 쉽게 끌린다. 그래서 이 학문이 명성의 문이 되자 금세 절제의 경계를 넘었고, 어셔도 이를 두려워했다고 전한다. 이문 수집의 첫 방식, 곧 여러 사본을 서로 비교하는 일(에라스뮈스, 스테파누스, 베자 등)은 정직했다. 그런데 뒤에 온 이들은 다른 원리를 세웠다. 원문에 여러 부패가 스며들었으니, 비평 능력과 고대 번역으로 찾아내 고쳐야 한다는 원리다. 오웬은 이 원리를 로마를 빼고는 교회 역사상 가장 해로운 원리라고 부르며, 다국어 성경 서론도 이를 지지한다고 말한다. 이 원리에서 나오는 네 가지 '고치는 법'을 그는 이렇게 고발한다. ① 모양이나 소리가 비슷한 글자를 서로 바꿔 본다. 그럴듯한 뜻이 나오면 필사자가 헷갈렸다고 하면 그만이다. 세상 모든 사본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러나 유대인은 반드시 본보기를 보고 베끼게 했다. ② 글자 순서를 뒤바꾼다. 같은 글자로 반대 뜻이 되기도 한다. ③ 모음 부호를 달리 붙인다. 히에로니무스가 든 세 글자 단어 하나(דבר로 보임)는 '말씀'도 되고 '역병'도 되어, 생명과 죽음만큼 멀어진다. ④ 칠십인역이나 불가타의 단어를 히브리어로 되돌려 보고, 한 글자라도 닮으면 “그 사본은 그렇게 읽었다”고 한다. '모음 부호는 후대 랍비의 발명이라 우리를 묶지 못한다'는 원리와 '사본 차이가 없어도 번역으로 이문을 모을 수 있다'는 원리가 합쳐지면, 모든 거룩한 진리가 완전한 불확실성에 빠진다. 이것이 오웬의 결론이다. 그는 흔들리는 이들에게 포코크의 『잡록 주석』을 권한다. 이어 히브리어 지식이 모두 칠십인역에서 왔다는 카펠루스의 주장을 반박한다. 히에로니무스는 히브리어를 히브리어 자체와 고용한 유대인 교사에게서 배웠다. 또 카펠루스 자신이 말하는 티베리아스 학자들은 칠십인역을 미워했으니 거기서 배웠을 리 없다. 언어는 스스로

끝으로 오웬은 모랭의 조롱에 답한다. 모랭은 이단들이 헬라어와 라틴어 사본의 이문은 인정하면서 히브리어의 이문은 부정한다며 비웃었다. 오웬은 우리가 헬라어 이문을 인정하는 것은 눈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히브리어에 그런 이문이 있었음을 실제 사본으로 보여 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1. 비평 연구 자체는 매우 유익하다
2. 헛된 영광과 호기심이 절제를 넘게 한다
3. 사본 비교는 정직, 추측으로 고치기는 해롭다
4. 네 수법: 비슷한 글자·순서·부호·역번역
5. “언어는 스스로 자기를 알게 해 준다”

> **에스겔 16:51**
> (인유) 예루살렘이 사마리아를 의롭게 보이게 함. 개신교가 원문을 깎아 오히려 로마의 성경 비난을 변호해 준 꼴
>
>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가장 좋은 것이 가장 남용되기 쉬운 법인데, 이런 학문과 연구에서 특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분명 우스운 일이다. 언어는 스스로 자기를 아는 지식을 준다.”

📜 7. 이 책의 세 부분과 맺음 인사

오웬은 퀘이커에 대해서도 길게 말하려 했다. 하지만 서문이 이미 너무 길어져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려고 책 끝에 붙인 명제들로 대신한다. 그는 다시는 이런 논쟁서를 내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평화를 원할 때 다른 이들은 전쟁을 준비했다. 교회

140장에 이르는 책 가운데 15분 만에 쓴 부분에만 조롱조로 답했다. 오웬은 어떤 이들이 덜 쓰면 다른 이들이 더 쓸모 있게 읽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동료 헨리 윌킨슨에게 신학 강의를 출판하라고 권한다. 이 책은 세 부분이다. 첫째는 설교한 내용을 많은 이의 요청으로 펴낸 것이다. 둘째는 다국어 성경의 서론과 부록에 대한 고찰인데, 다른 누가 해 주기를 바랐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는 편이 낫다고 여겨 썼다. 셋째는 퀘이커가 반대하는 하나님 말씀에 관한 진리를 '이름과 실체' 양면에서 정리한 명제들이다. 이로써 “성경에 관한 성경의 교리”를 완성하려 했다. 끝으로 이곳(대학)에 맡겨진 주님의 일을 위해 기도와 도움을 구한다. 문 앞에 서 계신 분께 기쁨으로 셈을 드리기 원한다고 말하며, 동료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1658년 9월 22일, “나의 서재에서” 쓴 글이다.

1. 퀘이커 반박은 책 끝 명제로 대신한다
2. 논쟁에 지쳤지만 피하지 않는다
3. 1부: 설교에서 나온 신적 기원론
4. 2부: 다국어 성경 서론·부록 고찰
5. 3부: 퀘이커 반박 명제, 성경론의 완성

> **히브리서 13:17**
> (인유) 즐거움으로 하고 근심으로 하지 않게. 맡은 이들에 대해 기쁨으로 셈하기 원하는 목회자의 마음
>
>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 **야고보서 5:9**
> (인유) 문 밖에 서 계신 심판주. 학자의 일도 그분 앞에서 결산된다
>
>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다른 누가 이 일을 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아무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편이 낫다.”

“어떤 이들이 덜 쓴다면, 다른 이들이 더 읽을 것이다. 적어도 더 쓸모 있게.”

📜 8. 첫 논고 「성경의 신적 기원」 편집자 서문과 개요

편집자는 첫 논고가 오웬의 설교를 들은 여러 사람의 요청에서 나왔다고 밝힌다. 이 논고는 기독교 계시를 뒷받침하는 '체험적 증거'라는 큰 논증을 처음 연다. 오웬은 이 논증을 뒤에 『신앙의 이유』(전집 4권)에서 더 펼쳤으니 함께 읽어야 한다. 비슷한 논증을 핼리버튼, 조나단 에드워즈(『신앙 감정론』), 차머스(『신학 강요』)가 이어 갔다. 특히 차머스는 오웬이 다른 변증가들보다 더 본질적인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다. 기록된 말씀 자체가 자기의 신적 기원을 드러내는 빛과 능력을 지니며, 그것이 목격자의 증언이나 기적보다 뛰어남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편집자의 개요가 나온다. 이 개요는 앞으로 정리할 본론의 지도 역할을 한다.

개요(편집자의 정리):

- 출발점: 계시의 권위는 신적 기원에 달려 있다. 구약과 신약이 이 권위를 주장하고, 특별한 섭리로 부패나 훼손 없이 전해졌다(1장).
- 성경은 신앙으로 받는다. 그 신앙은 하나님의 권위를 기초로, 곧 우리가 동의하는 '형식적 이유'로 삼는다. 권위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을 명하고 요구할 권리와 능력이다.

- 신적 기원을 증명하는 세 길. Ⅰ. 일반 귀납: 창조에 지은이의 도장이 찍혀 있듯 말씀에도 신적 기원의 내적 증거가 있다(2장). Ⅱ. 말씀이 자신에 대해 하는 증언. Ⅲ. 말씀에서 솟아나는 '내재 논증': 말씀이 주는 빛과, 사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영적 효력(3~4장).
- “성령의 증거”의 뜻을 설명하고, 교황주의와 열광주의의 오류와 구별한다. 전통의 권위를 거부하고 기적의 바른 자리를 밝힌다(5장).
- 보충 논증 둘: 교리의 성격(누구에게나 맞고 영광스러움), 성경 모든 부분의 조화와 연결.

1. 설교에서 나온 논고다
2. 핵심은 '체험적 증거'와 자증
3. 『신앙의 이유』와 짝을 이룬다
4. 차머스: 기적·목격자보다 강한 증거
5. 권위 = 하나님 이름으로 명하는 권리

> —
> 편집자의 소개글이라 성경 인용이 없다

“기록된 말씀 자체가 자기의 신적 기원을 드러내는 자증의 빛과 능력을 지니며, 이는 목격자의 증언이나 기적의 증거보다 뛰어나다.” (차머스, 편집자 인용)

⚖️ 오해와 반론

📖 용어

자증(自證)

성경이 다른 권위의 보증 없이, 그 자체의 빛과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 말씀임을

원문(원어 성경)
구약의 히브리어(일부 아람어) 본문과 신약의 헬라어 본문. 오웬은 이것이 모든 교리와 번역을 재는 시금석이라고 본다.

불가타
히에로니무스 계열의 라틴어 번역 성경. 트리엔트 공의회가 공인 성경으로 선언했다.

칠십인역
그리스도 이전에 만들어진 구약의 헬라어 번역. 줄여서 LXX라고 쓴다.

다국어 대역 성경(폴리글롯)
원문과 여러 고대 번역을 나란히 실은 성경. 월턴의 런던판, 르 제의 파리판이 대표적이다.

모음 부호(점)
자음만으로 쓰던 히브리어에 모음과 억양을 표시하려고 붙인 점과 선.

마소라 / 마소라 학자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정확히 전하려고 부호와 난외 주석을 붙인 유대 학자들과 그 전승.

이문(異文)
사본이나 판본마다 달리 적힌 읽기.

외경
개신교가 정경(하나님이 영감하신 책들의 목록)에 넣지 않는 책들. 로마 교회는 이를 성경에 포함한다.

기록되지 않은 말씀(구전 전통)
로마 교회가 성경과 함께 권위로 삼는, 교회가 전해 온 가르침.

🔗 **다른 책과 닿는 곳** ⌄

✅ 이 장의 결론

- 성경의 권위를 깎는 공격은 세 샘에서 나온다. 부분 계시론(전통), 교회 증언 필요론, 원문 부패론이다.
- 오웬은 이 가운데 원문 부패론을 가장 해롭다고 본다. 그것이 로마를 넘어 개신교 학계에까지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 개신교 안의 두 경로는 '모음 부호 후대 발명설'과 '고대 번역을 근거로 원문을 고치는 비평'이다. 둘이 합쳐지면 모든 진리가 불확실해진다고 오웬은 경고한다.
- 이 책의 세 부분은 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성경의 신적 기원·자증, 원문의 순수성, 퀘이커에 맞선 말씀론으로 “성경에 관한 성경의 교리”를 완성하는 것이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편 · 성경을 믿는다는 말의 뜻 · 다섯 책과 한 장의 지도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